

금강안과 흑리수 (金剛眼과 酷吏手)

A Keen Penetration and Stern Uncompromise in Hak-dong Sujolng

—승효상의 학동 수졸당—

成仁秀/울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포츨킨의 도시”로 이름 붙인 서울의 표정은 어떤 것인가?

러시아 정치가 그리고리히 포츨킨(1739~91년)은 여왕 캐더린 2세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데, 1787년 여왕 캐더린 2세에게 남부 러시아의 변영상을 보이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크레미아의 황무지에다 촌락을 나무판으로 급조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뒤로 ‘포츨킨의 도시’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이나 상태를 숨기기 위한 겉치레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Potemkin village) 그래서 이 말은 거만, 허위, 사기 등의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가 비난한 도시의 공허는 지금, 이땅,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허와 다를 바 없고, 그가 죄악시한 장식은 우리 시대 졸부들의 치장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돌프 로스가 제시한 답이

우리시대에 똑같은 답변일 수 없겠지요. 그가 겪어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가치있으며, 우리의 답은 우리의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도시를 포츨킨의 도시로 비유할 근거는 충분하다. 도시에서 침묵을 필요로 한다고 공간 학생건축상 심사때 승효상은 그렇게 말했다.

“실로 우리의 사회는 모두들 아우성이며, 도시속에서 도대체 편안히 쉴 곳이 없다. 특히 포이동의 추악한 건물들은 바로 우리시대의 틀림없는 거울이며, 우리는 이제 졸부의 차림새를 반성해야 하며, 스스로 못남을 부끄러워 해야 하며 절제해야 한다... 세기말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는 지금에 이 시대를 구하는 정신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가? 라는 물음을 서로 안는, 그리고 어쩌겠는지 그로 인한 건축적 해결을 모색하였다는 것”²⁾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

침묵하자, 외면하자, 거짓의 도시에 대해 담을 쌓자. 구태의연한 지금의 형태로부터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자. 이런 몸짓은 승효상의 수졸당의 형태에 깔려있고, 배경이 되는 태도이다.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승효상의 글에는 그 작품(作風)을 설명하는 몇개의 표제어들이 들어있다. 시대정신(時代精神), 빈자의 미학(貧子의 美學), 매월당 김시습, 자코메티, 베케트, 秋史 김정희, 아돌프 로스, 守拙堂 등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승효상의 건축을 충분히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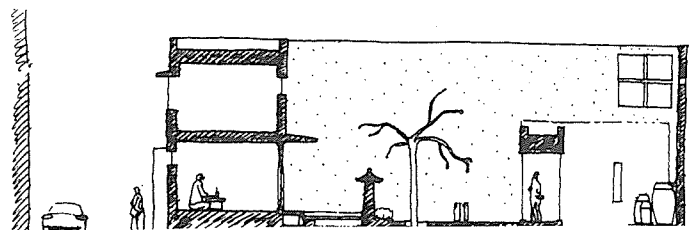
- 1) 플러스 9307 : 대담 “다시 이시대 우리의 건축” : 신도리코 기사수X 수졸당
- 2) 승효상, 공간9211 제10회공간 학생건축상 심사총평 대표집필, p. 47.



안뜰에서 본 담과 건물사이의 출입구



2층 베란다에서 본 담과 안뜰



단면스케치

없을 것이다. 승효상의 논리회로를 따라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우리는 그의 건축을 바라 볼 수 있는 지평에 설 것이다.

‘장식과 죄악’이라는 책을 쓴 아돌프 로스는, 장식을 한다는 것이 단지 노동력과 재료를 낭비할 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또 인간들의 노예적인 기교에 의존함으로써 인과응보로 주어지는 형태적 폐단만을 남길 뿐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노예적 기교란 부르조아 문화의 고귀한 성취가 쉽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나, 끊임없이 장식을 만들어내야 미적 만족을 발견해 내는 장인들에게나 정당화될 뿐이라고 했다.³⁾

이러한 시각으로 다른 건축가들에게까지 공격을 하였다. 주택에 맞도록 의상을 디자인하여 부인에게 입힌 앙리 방 데 벨데의 태도에 대해서도, 또 올브리히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대부분 아르 누보라는 다양한 태도로 새로운 소재인 철의 정확한 쓰임새를 모르는 채, 철을 장식재로 이용해 이국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해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해 장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비인 중심지에는 로마네스크 후기양식의 성 스테판 성당(1221년)이 있는 스테판 광장을 중심으로부터 주위로 일그러진 팔각형의 모양 중에서 6각형에 이르는 도로가 있다. 파리에 대규모 도로가 들어선 이후인 1858년부터 1914년까지 건설되었다. 이 도로의 명칭이 ‘링 스트라세’이다. 쇼톤 링-루에거 링-레너 링-브르벤크 링-오페른 링-캐론트너 링-슈베르트 링-파크 링-스튜벤 링에 이르기까지의 연속도로이며 북측에 도나우 강이 있다. 이 도로 주위에는 1870년대에 지어진 각종의 건물이 있는데, 왕궁, 오페라 하우스 등이 있고 지금도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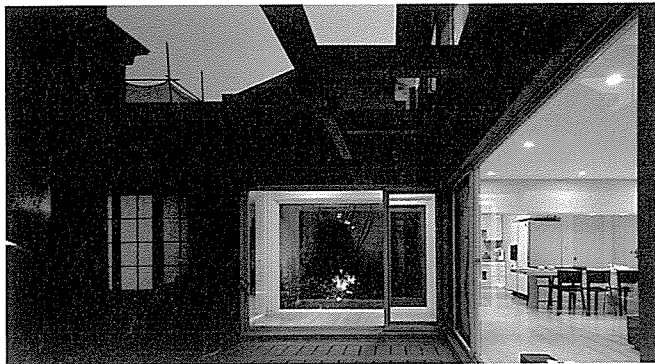
의회, 대학, 교회 등으로 쓰이는 건물들이 있다.

이에 대해 칼 솔스케(1970)는 비인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링 스트라세를 따라 세워진 훌륭한 구조물들은 자유주의 오스트리아의 이상을 실현한 건물들이었다. 대학, 미술관, 극장-그중에서도 오페라 극장 등 문화가 절충주의적 허식으로 (종교건물을) 꾸미거나, 귀족들을 위해 웅장한 건물을 표현하는 일은 그만두게 되었다. 궁전안에 갇혔던 문화는 길거리 시장에까지 흘러넘쳐, 누구나 문화를 의식하게 되었다. 문화는 깨어난 시민들을 위해-문화가 공공의 것임을-보여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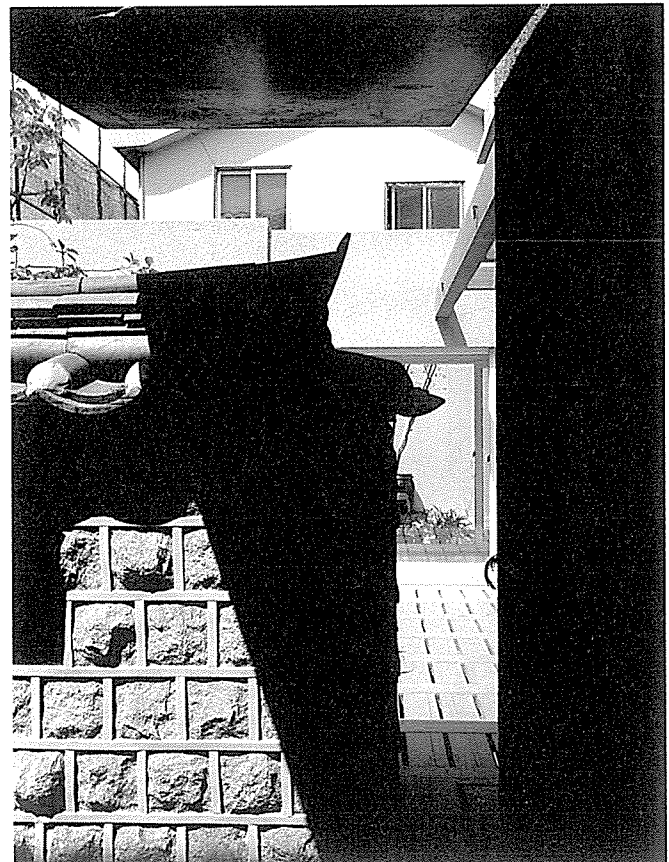
3) Kenneth Prampton.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third edition, London, 1992. Thames & Hudson. p.91.



안뜰에서 본 야경



복도로 구획된 마루마당과 뒷마당



담장 안쪽의 밝고 다양한 공간

장식이 되어야 한다...”⁴⁾고 평하고 있다.

“현대문화의 비평가로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아돌프 로스의 태도는 건축가라기 보다, 의상, 풍습, 음악에 이르는 분야에서의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평론가로서 유명했다. 건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한 것은 초기에 드물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비인 중심지 순환도로(Ringstrasse)를 둘러싸고 있는 거리의 건물들이었다. 자신의 도시 비인(윈, 비엔나)의 거리를 아돌프 로스는 포츨킨의 도시(Die potemkinsche Stadt)라고 비하했다. 1898년 7월에 발간된 ‘비인 제체션’과의 기관지 <거룩한 봄의 제물 Ver Sacrum> 잡지에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순환도로(링 스트라세)를 산보할 때마다, 나는 항상 포츨킨 같은 현대 건축가가 비엔나를 귀족들의 도시로

만들려고 한 것처럼 느낀다. 고귀한 주택을 만들 수 있었던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는 것이 자체의 고귀함을 꿈꾸기 위해 약탈을 당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일반 시민으로서의 비인의 새로운 시민들도 지하실에서부터 골짜기까지 완전히 궁전을 소유할 수 있었다... 비인의 땅주인은 저택을 소유했다는 생각에서, 또 입주자들 모두 저택에서 살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었다.”⁵⁾

자신의 도시를 추악하다고 비웃은 로스의 태도는 미국의 건축, 특히 미국사회에서의 수공업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오브제 형태를 그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 시대에 아돌프 로스를 외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빈자의 미학(貧子의 美學)과 도시에서의 침묵(都市의 沈默)을 원하는 승효상의 입장은 무엇인가?

“1992년 바로 여기서, 포츨킨의 도시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돌프 로스가 겪었던 고뇌에 동의하고자 한다... 나는 추사의 글씨에서 자코메티의 미학을 연상할 수 있다... 선비정신은 그 시대를 지탱케 한 시대정신... 다시 추사와 매월당을 마주하고자 한다. 그들이 이룬 문화를 나는 ‘빈자의 미학’이라고 부르하고자 한다.”⁶⁾

여기서부터 승효상은 한국과 서양의 생각을 접목시킨다. 우선 자코메티의

4) Carl Schorske, 'The Transformation of the garden: Ideal and Society in Austrian Literature, 1970', Kenneth P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p. 78.

5) Kenneth Prampton, 'Modern Architecture; A critical history', p.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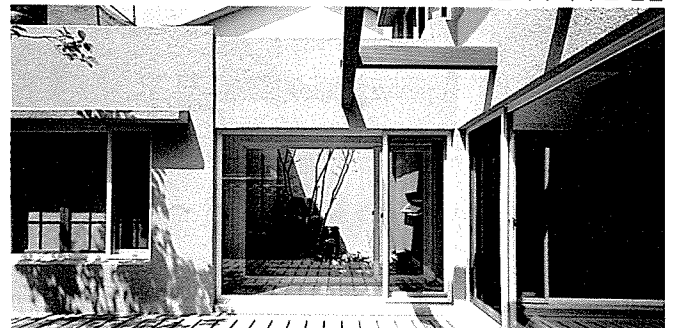
6) 4.3그룹, “4.3그룹 건축作品集”, (서울:1992, 도서출판 안그래픽스), 승효상 편, pp. 2~3.



담장 안쪽의 밝고 다양한 공간



거실에서 바라 본 안뜰



담을 등지고 바라 본 뒤뜰

조각이 등장한다. 조각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축, 조각, 회화가 하나로 어우러졌던 시대, 고딕의 시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바우하우스 표지에 등장하는 고딕성당의 모습에서 첨탑끝에 달려 빛나고 있는 세계의 별은 건축, 조각, 회화 등의 공간예술 대상을 상징하고 있었다. 즉 바우하우스에서도 건축, 조각, 회화 등은 하나를 향해 나가는 대상으로 보았다.

벽에 붙었던 신의 조각이 벽에서 거리로 나서고, 궁전 정원에 서있는 귀족의 모습에서 조각가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조각을 주문하는 고객이 없어진 뒤, 조각가들은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다. 더 이상 조각의 표정은 밝지도 않았고, 하늘을 바라볼 필요도 없었다. 또한 전쟁을 겪고난 이후의 조각에는 인간들의 고뇌가 담겨 있었다. 추상화된

조각, 현대의 조각이 당면한 문제는 인간 자신이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년)는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인간 이미지를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창조했다. 현대인의 고독에 대한 작가의 느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경이롭고 사람을 사로잡는 신비스런 성격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중에서도 나무, 유리, 철사, 실로 만든 <오전 4시의 궁전>(1932~33년 작)이 자코메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세뮤얼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타나는 불안과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은 자코메티의 무대구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역사적 흔적, 추사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절해고도의 고독을 기억하게 된다.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는 70평생에 십여개의 벼루를 닳게 하고, 천여자루의 붓을 무지러지게 하였다. 김정희가 18,9세기의 다른 실학자와 생활환경에 차이가 있다면, 그는 왕실 척족이요, 역대 환관을 배출한 문벌의 가정배경에서 나왔고, 그 자신도 정쟁에 휘말려 오랜 유배생활을 하였지만, 대사성, 병조참판 등 고위관직을 지낸 인물이다. 그의 관심이 창조의 새로운 학문방법과 방대한 문헌에 기울어 지면서도 현실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한다.⁷⁾ 유배기간 동안 현지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어려서 필재에 능했던 김정희가 바라본 ‘학문과 글의 세계’에 대한 태도는

7)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하권)
(서울, 동명사, 1987), p. 145.



뒷마당에서 바라 본 마루마당

금강안과 흑리수(金剛眼과 酷吏手)로 압축된다. 금강안은 비할데 없는 예리한 통찰력을 말하고, 흑리수는 흑독하리만치가차없이(자신에 대해) 냉엄한 비타협성을 일컫는다. 즉, 예술에 대해, 그림과 글씨를 감상하는 태도와 방법을 말하면서 금강안과 흑리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와 방법으로서만 어떤 작품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작품에 대한 태도이자 자신에 대한 법칙이기도 했다.

매월당 金時習(1435~1493년)은 끊임없는 저항문학인으로 세속과 정권찬탈에 놀아난 신하들에 대해 실망을 하고, 사회의 원인이 된 공신전 등 논밭에 대한 제도 등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자유주의자로서 자유소요로 모든 구애를 벗어나 당시의 추악한 권력층에 저항한 천재였다.

주택 수출당에서의 전경의 특징과 초점은

마루바닥을 칸 마루마당이 있는 중정에 이르는 길에서 나타난다. 대문을 들어서 시야를 반쯤 가로막는 담장이 먼저 눈에 든다. 거실에 들어서서 방향을 틀면 담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그림이 드러난다. 벽면을 배경으로 외로이 서있는 감나무를 보게 된다. 아직 잎이 많다.

작가는 소나무를 심으려 했을듯 한 데, 배경이 되는 담이 뒷집때문에 낮아진만큼의 사정만큼, 감나무가 허락되었다.

생각나는 글귀는 논어 내용 중의 공자의 말이다. “세한 연후 지송백지 후조(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 (겨울을 당한 후에 소나무, 잣나무가 여느 나무와 다르다는 것을 알거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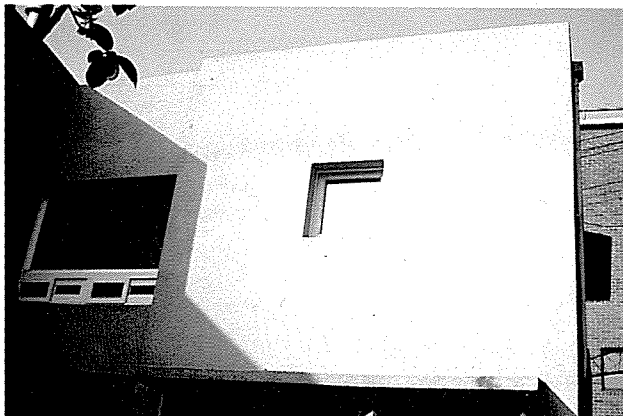
추사는 “세한도”를 그려 세상인심에 대해 표현했다. 이 세한도는 연경을 다녀오게 되고, 그를 아끼던 북경의 학자들에게 선보여져 칭송된 것으로 유명하다.

“화선지 목판에 밑둥이 부실한 노송 두그루를 그리고, 한넉으로 또 두그루의 젊은 잣나무를 쳤다. 노송 아래에 얽막한 한 채의 와가, 그림은 되도록 해맑은 우선(이상적)의 인상처럼 그리려고 애썼다. 그림이 완성되자 전예체로 ‘세한도’, ‘우선시상 완당’이라고 머리에 썼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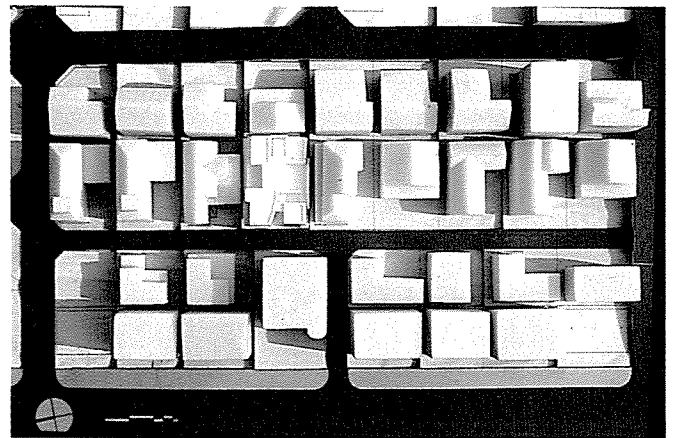
송백을 대신한 감나무와 모과나무가 침실로 있는 복도 좌우의 마루마당과 뒤뜰에 한 그루씩 있다. 마루가 깔린 바라보는 마루마당은 야외 거실로서의 기능보다 한그루 나무의 배경으로서 바닥에 누워있다.

이러한 전경에서 느껴지는 것은 ㄷ자 모양의 별이 잘 들고, 하나로 공간이 통일된, 외부로는 소박하게 보이는

8) 오성찬, 「추사 김정희」 장편소설, 서울, 도서출판 큰산, 1993, pp.216~229.



외부상세



주변 전체 모형



진입로에서 본 전경



부엌에서 본 거실과 안뜰

주택이다. 그리고 이것은 집이름을 붙인 주인 유흥준 교수의 소박한 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효상은 소박한 선비정신을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말했다. 그러나 예를 든 추사, 매월당의 정신이 당시에도 공통된 이념이 되지 못했듯이, 추사의 글씨체가 여러사람에게 두루쓰인 전형적인 글씨라기 보다는 추사의 개성이 돋보이는, 지극히 개성적인 글씨체이다. 각고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그것을 초월하여 탄생된 것이었다.

4.3그룹의 시대정신이 ‘우리의 삶과 긴결되어 축적된 시간의 흔적과 장소성을 말살하고 있다’⁹⁾고 주장되었듯이, 시대정신으로 확산되어야 할 타당성을 발견해 내는 것이 과제이다. 즉 많은 시민들에게 읽히고 쓰여야 할 때까지는... 과거 불운했던 선각자들의 사고의 틀에

점목시켜, 민중의 삶과 궤를 같이하기로 한 선각자의 마음속에서 빚어진 최소한의 공간이며, 시각적인 여유가 드러난다.

아돌프 로스가 나이들어 사교계에 합류하고 그들을 위해 주택을 설계한 후반의 이력이나, 시카고 트리뷴사 응모작을 보면 일생을 통해 균일한 작가정신이 현실속에서 퇴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절망이 그의 온 몸을 사로 잡으려 할 때, 그의 핏줄속에 녹슨 철물이 흐르려고 할 때, 그는 억지로 일어나 서안 앞에 앉았다. 그리고 정성을 모아 글씨를 써나갔다. 그 붓 끝에서 뻑뻑하고 거센 글자들이 이루어져 갔다. 이른바 추사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씨체였다.”¹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절망했는가? 또 그 절망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창조력을 부추기는가? 에 따라, 인생앞에 진지한

건축공간의 크기가 정해진다.

“자신의 글씨가 높게 빛나는 것은 싫지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상 허황되게 평가받은 것은 더 싫었다. 더구나 그것이 순박한 백성들로부터 일 때 이는 못할 일이었다. 그것은 더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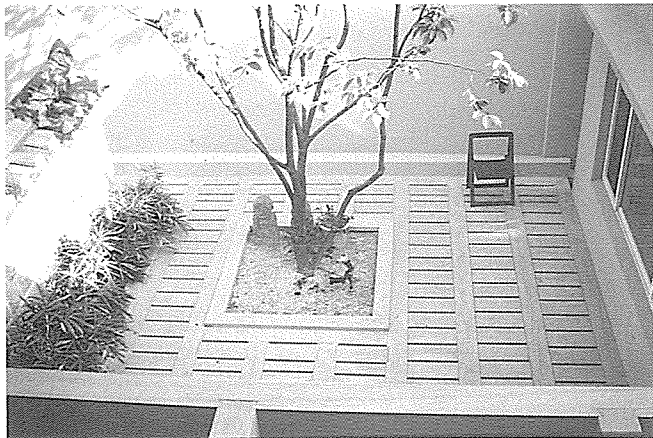
추사에게는 글씨쓰는 일은 구원의 한 수단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설계가 구원의 수단이 될 때까지 우리의 시대정신은 시험에 들고있다.

9) 이정근,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의 지푸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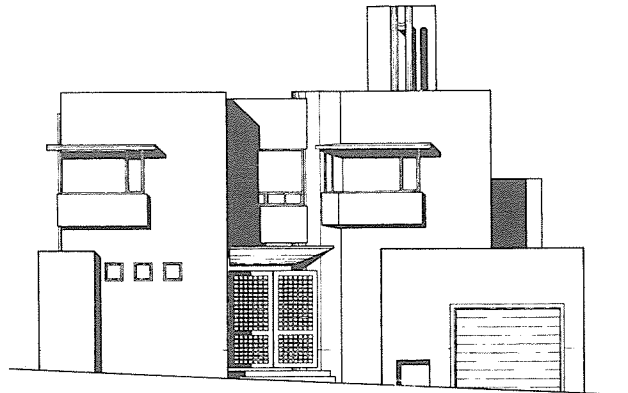
건축사 9302.

10) 오성찬, 앞책, p.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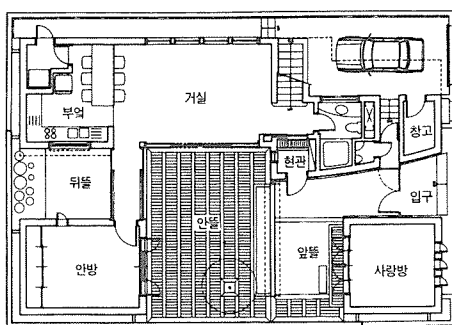
11) 오성찬, 앞책, p.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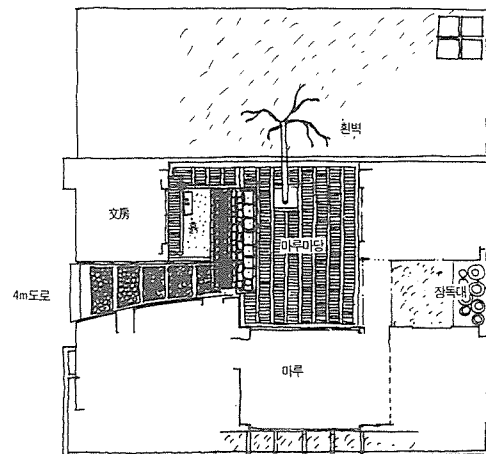
위에서 내려다 본 안뜰



정면도



1층 평면도



디자인 요소